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교육요구도*

김 정 혜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약의 발달과 함께 질적으로 높아진 영양공급, 생활 환경의 개선 등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일조하여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다(통계청, 2001).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노인 문제를 크게 표출하기 시작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노인 문제는 건강상태가 악화해 가는 중세로서 보행상의 불편, 시각장애, 청력감퇴, 기력감소, 복합성 질환의 합병증 등의 신체적 문제, 어느 누구 하나 돌보아 주지 않는 즉, 자녀들의 생활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없는 가족과의 관계, 직무생활에 분주한 퇴직 전 직장 후 배 등과의 의사소통 기회의 단절, 친한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짐을 느끼게 되는 정신적 문제, 경제적으로 자녀 혹은 자녀 이외의 타인에게 또는 유관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회적 역할을 상실당하고도 사회적 생활을 누려야만 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변될 수 있다(김수영, 2000).

따라서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특히 각 영역별 구체적인 노인 문제를 발굴하여 교육적 차원 혹은 복지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러나 연금이나 노인 건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견지하

고 있는 선진 산업사회에서 조차도 높은 비율의 노인 인구 증가로 이미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정 부담의 문제를 낳고 있어 현재의 노인 복지 체계로는 21세기에 들어선 후 노인들의 부양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예측되고 있다(박재간, 홍미령, 1999; 김수영, 2000). 그뿐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연금을 뒷받침해줄, 일하는 젊은 세대의 수는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현행 노인보건복지제도가 노인문제를 해결해 주기에는 그 효율성의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로 예외일 수 없다. 실제로 벌써부터 군인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비롯해서 사학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각종 사회보험제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박재간, 홍미령, 1999).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는 다양한 노인들의 요구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보다 많은 관심과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빈곤을 포함하는 사회적 문제는 주로 공적 연금 보험제도나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적 부조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려 하며, 질병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는 유형에 따라 단기적인 치료를 위해 의료보험제도나 의료보호제도, 장기적 치료 및 요양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장기요양보호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추세이다(유수정, 김현숙, 한규량, 2002). 그리고 소외감과 관련된 정신적 문제는 주로 자원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참여 등과 같은 노인 여가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다.

교육적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

주요어 : 노인, 교육요구

* 본 연구는 수원여자대학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1) 수원여자대학 간호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p000022@swc.ac.kr)

고 이들을 교육 정책에서의 주요 대상 집단으로 고려한 여가 활용, 퇴직 전 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1).

노인들은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로 사회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오늘의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한 학습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노인교육의 역할은 급속한 고령화에 수반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노인문제를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대안으로 노인교육과 취업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현재 노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노인학교가 가장 일반적이며 그 외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및 몇몇 종교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일관성 있게 사용할 만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다 볼 수 있으나 노인교육에 관한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노인교육은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확충될 노인복지시설에서 활용할만한 교육 프로그램 제시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노인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근거를 제시할만한 조사 및 연구로는, ‘퇴직 교육에 대한 연구(김일성, 2002)’, ‘노인의 여가에 대한 연구(노용구, 1999; 나항진, 2002)’ 등이 있으며,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로 ‘노인교육 교육과정 개발 실천연구(한정란, 1993)’와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이순희, 2000)’, 그리고 ‘대도시 노인의 교육요구(이복희, 2003)’ 등의 극히 소수의 연구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인 1999년 이후부터 노인교육의 구체적인 접근으로서 노인교육의 실태조사 및 노인교육의 다양한 형태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오고 있다(김수영, 2000; 민순, 주애란, 백명, 박상하, 신인용, 2002; 박성준, 1993; 유수정 등, 2002; 이승미, 2002; 이형진, 2004).

이들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층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배려와 아울러 노년기 발달과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적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 인구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이나 문제를 고려해 인간 발달 주기에서 노인에게 요구되는 교육, 노동, 여가를 합리적으로 구조화해 내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로 인해 2003년 현재 노인주거복지 및 의료복지시설 295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47,358개소, 그리고 노인재가복지시설 368개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노인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 산업 인력 공단에서 단기 직업적응 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 교육은 노인 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기보다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고, 교육적 측면보다는 무료한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역할이 더 큰 실정이라 노인교육에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저 학력, 저소득층 학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어 문맹 퇴치식 교육이나 여가시간의 오락 활동이 교육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송화진, 2001; 민 순 등, 2002).

이는 노인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인을 비생산적이고 소비적인 활동으로만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노인교육의 체계와 프로그램 개발은 고령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사회가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조사하고 이를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교육요구를 조사,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노인교육실태에 대해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정도와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영역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노인교육실태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영역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수원시 내 S대 평생교육원 및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10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0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시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익명성 보장, 대상자에 대한 인구학적 내용이나 면담 내용을 연구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후 이에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도구

<노인교육요구도> 조사 도구는 홍기형(2001), 김재인(1987), 이순희(2000) 등의 문헌연구 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개발된 <노인교육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한 본 도구는 일반

적 특성 11문항, 노인교육 실태에 대한 인식 11문항, 신체적 영역에 대한 교육 요구도 14문항, 정신적 영역에 대한 교육 요구도 21문항, 사회적 영역에 대한 교육 요구도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영역의 점수는 '매우 필요하다' 5점으로부터 '매우 필요하지 않다' 1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으로 나타났다.

자료처리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versio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영역에 대한 교육요구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서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영역에 대한 교육요구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분포로는 남자가 44.0%, 여자가 56.0%를 차지하였으며,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60세-69세는 56.9%, 70-79세는 38.5%, 80세 이상은 4.6%를 차지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는 74.3%,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는 25.7%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학력군을 살펴보면 중졸이하가 35.8%, 고졸 이상이 64.2%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월수입은 50만원 미만이 66.1%, 50만원 이상이 33.9%로 나타났다. 용돈의 지출처로는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대상자가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와 취미생활에 사용한다 43.1%,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지출한다 20.2%, 의료비 19.3%, 친구와 지내면서 사용한다 18.3%, 손, 자녀의 용돈으로 지급한다 15.6%, 술이나 담뱃값으로 사용 11.9%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가족형태는 혼자 독거하는 대상자가 71.6%, 가족과 동거하는 대상자가 28.4%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종교를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사람은 72.5%, 종교가 없는 사람은 27.5%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직업이 있는 사람은 21.1%, 직업이 없는 사람은 78.9%이다. 연구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매우 나쁜 편이거나 나쁘다'고 대답한 사람이 46.8%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0.3% '좋은 편이다 혹은 매우 좋다'가 22.9%로 나타났다. 노인 자신이 가진 문제의 유형 중 가장 심각하게 인지하는 문제의 유형으로는

경제문제로 42.2%가 이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건강문제 3.9%, 기타문제 9.2%, 자녀문제 6.4%, 고독감문제 5.5%, 거주문제 2.8% 순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9)

		실수	백분율
성별	남	48	44.0
	여	61	56.0
연령	60-69세	62	56.9
	70-79세	42	38.5
	80세 이상	5	4.6
배우자	유	81	74.3
	무	28	25.7
교육정도	중졸 이하	39	35.8
	고졸 이상	70	64.2
수입	50만원 미만	72	66.1
	50만원 이상	37	33.9
용돈의 지출처*	생활비(의식주)	42	61.5
	여가, 취미생활	47	43.1
	술, 담뱃값	13	11.9
	손, 자녀 용돈지급	17	15.6
	의료비	21	19.3
	축의, 조의금	22	20.2
	친구와 지냄	20	18.3
	기타	5	4.6
가족형태	독거	78	71.6
	가족과 동거	31	28.4
종교유무	유	79	72.5
	무	30	27.5
직업유무	유	23	21.1
	무	86	78.9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나쁜 편이다	51	46.8
	보통이다	33	30.3
	좋은 편이다/매우 좋다	25	22.9
노인문제 유형	경제문제	46	42.2
	거주문제	3	2.8
	건강문제	37	33.9
	고독감문제	6	5.5
	자녀문제	7	6.4
	기타	10	9.2

무응답제외, *증복응답

대상자의 노인교육실태에 관한 인식정도

노인교육기관의 수에 대해 연구 대상자의 78.9%는 너무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고 인식하는 대상자가 60.6%, 매우 다양하거나 다양하다 21.1%, 매우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가 15.6%로 나타났다.

노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가 63.3%, 필요하다 31.2%, 보통이다 5.5%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61.5%는 노인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노인교육에 참여한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가 33.0%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29.4%, 여가활용과 활기찬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가 각각 24.8%, 친구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2.0%, 시간을 소요하기 위해 17.4%, 규칙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14.7%, 스트레스 해소 13.8%, 그리고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교육을 받은 후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여가시간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가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정신적 건강문제

<표 2> 대상자의 노인교육실태에 관한 인식정도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기관수	보통이다	23	21.1		
	너무 적다	86	78.9		
프로그램의 다양성	매우 다양/ 다양하다	23	21.1		
	그저 그렇다	66	60.6		
교육의 필요성	부족하다/매우 부족하다	20	15.6		
	매우필요	69	63.3		
노인교육 참여경험	필요	34	31.2		
	보통	6	5.5		
노인교육 참여이유*	있음	67	61.5		
	없음	42	38.5		
교육 후 이득	건강을 위해서	36	33.0		
	여가활동	27	24.8		
교육 후 만족도	시간소요	19	17.4		
	친구들과 대화의 장	24	22.0		
교育 후 만족도	규칙적인 생활 가능케 함	16	14.7		
	스트레스 해소	15	13.8		
노인교육 참여의지	새로운 지식 습득	32	29.4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5	4.6		
노인교육 희망시설	활기찬 생활가능	27	24.8		
	여가시간활용	19	28.2		
희망 강사	고독감 해소	12	19.7		
	정신적 건강문제 해결	18	26.8		
노인교육 희망방법	육체적 건강문제 해결	6	9.9		
	사회참여 가능	11	15.5		
희망 강사	교육프로그램의 질			3.81	0.60
	교육방법			3.73	0.56
희망 강사	교육 강사의 질			4.00	0.68
	교육시설, 설비			3.54	0.76
희망 강사	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			3.62	0.63
	상담, 자료, 정보, 서비스 등			3.43	0.65
희망 강사	교육의 사회적 활용 및 인정			3.36	0.76
	있음	82	79.6		
희망 강사	없음	6	5.8		
	모르겠음	21	14.6		
희망 강사	경로당(노인정)	5	4.7		
	노인대학, 노인교실, 노인학교	48	44.9		
희망 강사	노인복지회관	36	33.6		
	종교단체	14	13.1		
희망 강사	기타	6	3.7		
	강의	7	6.5		
희망 강사	비디오	14	12.8		
	사례발표	18	16.5		
희망 강사	현장실습	63	57.7		
	기타	7	6.5		
희망 강사	대학교수	69	63.3		
	교사	4	3.7		
희망 강사	저명인사	11	10.1		
	동년배	23	21.1		
희망 강사	기타	2	1.8		

*중복응답

해결 26.8%, 고독감 해소 19.7%, 사회참여가능 15.5%, 육체적 건강문제 해결 9.9%로 나타났다.

노인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교육 강사의 질에 대해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교육프로그램의 질에 대해서는 3.81, 교육방법 3.73, 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 3.62, 교육 시설 및 설비 3.54, 상담, 자료, 정보, 서비스 등에 대해 3.43, 그리고 교육의 사회적 활용에 대해서는 3.36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노인교육에 대해 참여의지를 질문하였을 때 79.6%는 참여의지를 표명하였다. 희망 교육시설로는 노인대학, 노인교실, 노인학교가 44.9%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방법으로 57.7%는 현장실습을 선호했고 다음으로는 사례 발표 16.5%, 비디오 12.8%의 순이었으며, 강의식은 6.4%의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노인교육의 희망 강사로는 63.3%가 대학교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영역에 대한 교육요구도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영역에 대한 교육요구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신체적 영역, 정신적 영역,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 대한 요구 정도는 각각 4.36점, 4.02점, 4.70점으로 사회적 영역에 대한 교육요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영역에서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은 '치매예방'으로 5점 만점에 4.75점으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

<표 3>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영역에 대한 교육요구도

영역	교육내용	평균	표준편차	순위
신체적 영역	치매예방	4.75	0.49	1
	노년기 건강유지 및 체력단련법	4.65	0.54	2
	안전사고 예방법	4.55	0.68	3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	4.52	0.69	4
	노인의 보건위생	4.52	0.67	4
	노인의 건강한 식생활	4.49	0.68	6
	노년기 한방요법	4.47	0.65	7
	질병예방 및 스트레스관리	4.46	0.77	8
	체조/단전호흡/수영/요가/케이트볼	4.39	0.79	9
	노년기의 몸과 옷	4.37	0.69	10
	교통안전	4.36	0.75	11
	스포츠 마사지	4.13	0.83	12
	노년기의 성생활과 건강	4.08	0.73	13
	배드민턴/탁구/줄넘기/에어로빅	3.82	0.83	14
소 계		4.36	0.44	
정신적 영역	죽음의 의미와 준비	4.46	0.65	1
	노년기의 심리적 변화 및 적응법	4.40	0.68	2
	노래 부르기(가요/민요/국악/가곡)	4.40	0.73	2
	문화순례/고궁산책	4.35	0.67	4
	인터넷 활용법 알기	4.30	0.71	5
	노인의 삶 회고 유언쓰기	4.27	0.80	6
	정보화 소양 기르기	4.22	0.72	7
	신앙 생활교육	4.21	0.82	8
	컴퓨터 사용기법 익히기	4.20	0.75	9
	명상법	4.11	0.73	10
	춤추기(탈춤/무용/댄스/무용 감상)	4.05	0.78	11
	외모관리(피부관리/의상관리/헤어스타일)	4.05	0.88	11
	꽃꽂이/화초재배/요리	4.01	0.92	13
	예술의 이해와 감상	3.92	0.62	14
	서양화/동양화/사군자/서예	3.86	0.75	15
	바둑/장기	3.83	0.81	16
	부업기술	3.70	0.82	17
	악기다루기	3.67	0.76	17
	연극	3.55	0.76	19
	사진찍기	3.49	0.69	20
	의류만들기	3.39	0.73	21
소 계		4.02	0.44	

<표 3>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영역에 대한 교육요구도(계속)

영역	교육내용	평균	표준편차	순위
사회적 영역	노인문제	4.64	0.55	1
	노인복지	4.56	0.54	2
	가족관계/고부관계/부모교육/손자녀관계	4.52	0.67	3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실천	4.48	0.58	4
	노인 도움주기	4.46	0.63	5
	대인관계술	4.45	0.56	6
	노인동아리 활동	4.45	0.62	6
	세대내 및 세대간 대화기법	4.44	0.61	8
	여가와 가치관의 정립	4.43	0.63	9
	자기표현훈련	4.36	0.62	10
	노인과 법/노인복지법	4.32	0.63	11
	경제마인드/용돈관리	4.27	0.72	12
	노인문화와 노인 상	4.26	0.65	13
	환경정화/환경보호/폐품 재활용	4.14	0.73	14
	민주시민 예절	4.12	0.67	15
	민주시민 의식	4.11	0.66	16
	노인의 리더쉽	4.06	0.72	17
	지역사회발전과제	4.02	0.64	18
	노인의 세력화	3.92	0.65	19
	한글/한문/국사/윤리	3.91	0.77	20
소 계		4.70	4.07	

다. 다음으로는 ‘노년기 건강유지 및 체력단련법’ 4.65, ‘안전 사고 예방법’ 4.55,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 4.52, ‘노인의 보건위생’ 4.52, ‘노인의 건강한 식생활’ 4.49, ‘노년기 한방요법’ 4.47, ‘질병예방 및 스트레스관리’ 4.46, ‘노년기 몸과 옷’ 4.37, ‘교통안전’ 4.36, ‘스포츠 마사지’ 4.13, ‘노년기의 성생활과 건강’ 4.08, ‘체조/단전호흡/수영/요가/게이트볼’ 4.39, 그리고 ‘배드민턴/탁구/줄넘기/에어로빅’ 3.82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영역에서는 ‘죽음의 의미와 준비’가 4.46점으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노년기의 심리적 변화 및 적응법’과 ‘노래 부르기(가요/민요/국악/가곡)’ 4.40, ‘문화순례/고궁산책’ 4.35, ‘인터넷 활용법 알기’ 4.30, ‘노인의 삶 회고, 유언쓰기’ 4.27, ‘정보화 소양 기르기’ 4.22, ‘신앙 생활교육’ 4.21, ‘컴퓨터 사용기법 익히기’ 4.20, ‘명상법’ 4.11, ‘외모 관리(피부관리/의상관리/헤어스타일)’ 4.05, ‘춤추기(탈춤/무용/댄스/무용·감상)’ 4.05, ‘꽃꽂이/화초재배/요리’ 4.01, ‘예술의 이해와 감상’ 3.92, ‘서양화/동양화/사군자/서예’ 3.86, ‘바둑/장기’ 3.83, ‘부업기술’ 3.70, ‘악기다루기’ 3.67, ‘연극’ 3.55, 그리고 ‘사진찍기’ 3.49, ‘의류만들기’ 3.39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해 4.64로 가장 교육받고 싶어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노인복지’ 4.56, ‘가족관계/고부관계/부모교육/손자녀관계’ 4.52,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실천’ 4.48, ‘노인 도움주기’ 4.46, ‘대인관계술’ 4.45, ‘노인동아리 활동’ 4.45, ‘세대내 및 세대간 대화기법’ 4.44, ‘여가와 가치관의 정립’ 4.43, ‘자기표현훈련’ 4.36, ‘노인과 법/노인복지법’ 4.32, ‘경제마인드/용돈관리’ 4.27, ‘노인문화와 노인 상’ 4.26, ‘환경

정화/환경보호/폐품 재활용’ 4.14, ‘민주시민 예절’ 4.12, ‘민주시민 의식’ 4.11, ‘노인의 리더쉽’ 4.06, ‘지역사회발전과제’ 4.02, ‘노인의 세력화’ 3.92, 그리고 ‘한글/한문/국사/윤리’ 3.91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독립변인 중 교육요구도에 차이를 나타낸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교육정도, 직업유무 등 5가지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신체적 영역($t=-3.67$, $p=0.000$), 정신적 영역($t=-4.58$, $p=0.000$), 사회적 영역($t=-2.60$, $p=0.011$), 및 전체 영역($t=-4.27$, $p=0.000$)에서 유의하게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고, 교육요구도 역시도 남성노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t=-4.27$, $p=0.000$).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정신적 영역에 관한 교육요구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F=3.50$, $p=0.035$), 다중비교 분석결과 80세 이상 노인들이 70-79세 노인들에 비해 정신적 영역에 대한 노인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p=.045$).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신체적 영역에 관한 교육요구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신체적 영역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t=-2.31$, $p=0.024$).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에서는 신체적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

		신체적 영역	정신적 영역	사회적 영역	교육내용 합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4.17±0.51	3.79±0.45	3.96±0.40	3.93±0.39
	여	4.51±0.32	4.18±0.36	4.15±0.34	4.27±0.28
	t(p)	-3.67(.000)***	-4.58(.000)***	-2.60(.011)*	-4.27(.000)***
연령	60-69세	4.34±0.46	4.05±0.41	4.11±0.35	4.16±0.36
	70-79세	4.35±0.44	3.93±0.46	3.98±0.40	4.04±0.36
	80세 이상	4.71±0.15	4.50±0.26	4.35±0.11	4.54±0.11
배우자	F(p)	1.69(.189)	3.50(.035)*	2.54(.085)	3.10(.051)
	유	4.32±0.48	4.00±0.44	4.05±0.38	4.10±0.38
	무	4.50±0.25	4.07±0.45	4.12±0.35	4.21±0.32
교육정도	t(p)	-2.31(.024)*	-0.63(.532)	-0.74(.464)	-1.07(.286)
	중졸 이하	4.51±0.31	4.13±0.36	4.12±0.39	4.23±0.31
	고졸 이상	4.29±0.48	3.96±0.47	4.04±0.37	4.08±0.38
가족형태	t(p)	2.66(.009)**	1.88(.064)	0.99(.328)	1.76(.083)
	독거	4.37±0.45	4.04±0.47	4.09±0.38	4.13±0.38
	가족과 동거	4.35±0.45	3.96±0.35	4.03±0.37	4.12±0.34
종교유무	t(p)	0.13(.895)	0.81(.419)	0.68(.502)	0.19(.851)
	유	4.38±0.44	4.05±0.42	4.10±0.39	4.15±0.37
	무	4.30±0.50	3.90±0.53	4.01±0.32	4.06±0.37
직업유무	t(p)	0.73(.469)	1.28(.204)	1.01(.316)	0.90(.370)
	유	4.49±0.45	4.18±0.49	4.17±0.30	4.28±0.34
	무	4.32±0.44	3.98±0.42	4.04±0.39	4.08±0.36
	t(p)	1.56(.121)	1.87(.065)	1.34(.182)	2.04(.045)*

영역에 대한 교육요구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인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에 비해 신체적 영역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t=2.66$, $p=0.009$).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전체영역과 교육요구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직업을 가진 노인이 직업이 없는 노인에 비해 전체 영역($t=2.04$, $p=0.045$)과 교육 요구도($t=2.04$, $p=0.045$)가 높게 나타났다.

논의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문제와 노인교육요구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자신이 가진 문제의 유형 중 가장 심각하게 인지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경제문제와 건강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노인 문제로 흔히 노인의 3대 고통이라고 하는 질병, 소외감, 빈곤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주장(Anderson, 1999)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특히 신체적인 건강은 생활만족, 사회적 역할의 수행,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가족·지역사회에서의 소속감, 여가를 유용하게 보내는데 영향을 미치고(Billet, 1999; Chowdhary et al., 2000; Vogel, 1982), 건강상태가 악화할 때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므로 노년기의 신체적 건강관리는 노후생활의 원동력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노인질환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약화는 노인자신은 물론 부양책

임을 맡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된다(Knowles, 1980; Russel & Walker, 1986). 더욱이 핵가족제도에서는 노인이 건강하고 생활능력을 갖고 있을 때에는 상호 협조할 수 있으나 병에 걸려 장기간 간호를 요하거나 생활력을 상실하고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노인의 건강문제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노인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교육실태에 대한 인식정도를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의 94.5%가 노인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데 반해 노인교육기관의 수는 너무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노인교육에 대해 참여의지를 질문하였을 때 79.6%는 참여 의지를 표명하므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교육의 활성화 도모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판단된다.

노인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았을 때, 노인의 신체적 영역, 정신적 영역,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 대한 요구 정도는 각각 4.36점, 4.02점, 4.70점으로 사회적 영역에 대한 교육요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에 대해서는 인간의 기본 욕구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인간은 출생하면서 개인과 집단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역할은 개인이 집단이나 사회와의 관계를 갖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개인은 역할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이것을 통해 개인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며, 또한 자아정체감을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장인협, 최성재, 1988).

그러므로 노년기에 접어든다는 것은 노인으로부터 새로운 역할이 기대된다는 뜻이나 현실적인 문제는 노인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어떤 것인지가 점점 불확실해져 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Havighurst(1966)는 노년기에는 세 가지 역할, 즉 잃어버리는 역할, 그대로 남는 역할, 새로이 맡게 되는 역할이 있다고 하여 자녀 독립 후의 부모로서의 역할은 점차 잃어버리게 되지만 계속 맡게 될 역할을 자각하고 새로이 발견해서 맡아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경험하는 고독과 불안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와 역할상실뿐만 아니라 정서적 부양의 결핍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사회적 영역에 대한 문제는 상호작용과의 괴리에서 기인되며 이로써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거나 불행감과 불만족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질병이나 거동 불능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유리된 생활을 할 경우 심화된다. 개인주의적 서양사회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아 노인들을 고독하게 만들고 병원이나 양로원 등에 수용시키는 경우가 많아 일찍부터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노년기에 부모와 성장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주로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 및 애정의 표현과 관심의 정도로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가족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가 강하면서도 종족관계를 중시하는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친자간에 가치관이나 역할기대에서 갈등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자식과 물리적으로는 동거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별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난다(박재간, 임춘식, 1983). 송화진(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 자녀 간에 공간적, 물리적 동거보다 경제적 안정 및 심리적, 정서적 유대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핵가족화도 문제이지만, 고도의 산업기술로 인한 능력위주 등으로 인한 정년퇴직의 강요, 빈곤과 고독, 그리고 소외감 등이 노인들의 현실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노인들이 사회적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교육받고 싶어 하는 내용이 ‘노인문제’가 4.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노인복지’, ‘가족관계/고부관계/부모교육/손자녀관계’,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실천’, ‘노인 도움주기’, ‘대인관계술’, ‘노인동아리 활동’, ‘세대내 및 세대간 대화기법’, ‘여가와 가치관의 정립’, ‘자기표현훈련’ 등의 순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도 노인 스스로 여가를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인 적응을 위한 자세와 능력을 갖추게 하는 실천적 사회 교육적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에 두어야 할 것이다.

노인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신적 영역에서 연구 대상자들은 ‘죽음의 의미와 준비’를 위한 교육에 대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노년기의 심리적 변화 및 적응법’,

‘노래 부르기’, ‘문화순례/고궁산책’, ‘인터넷 활용법 알기’, ‘노인의 삶 회고, 유언쓰기’, ‘정보화 소양 기르기’, ‘신앙 생활교육’, ‘컴퓨터 사용기법 익히기’, ‘명상법’, ‘외모관리’, ‘춤추기’, ‘꽃꽂이/화초재배/요리’ 등에 매우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이는 노년기의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정신적 문제로 여가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결과이다. 현재의 노인은 빈곤사회에서 청, 장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여가활동에 대한 경험과 훈련이 부족한데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역할상실의 노년기 생활이 장기화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여가의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못하느냐는 노령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주요한 결정요인이 된다(장인협, 최성재, 1988). 따라서 노인세대들이 대개 고립과 고독의 시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은 보람있고 뜻있는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며, 노인의 정신건강은 노인 자신의 태도에 좌우됨을 깨닫게 하는 데는 노인교육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한편 신체적 영역에서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은 ‘치매예방’으로 5점 만점에 4.75점으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노년기 건강유지 및 체력단련법’, ‘안전사고 예방법’,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 ‘노인의 보건위생’, ‘노인의 건강한 식생활’, ‘노년기 한방요법’, ‘질병예방 및 스트레스관리’, ‘노년기 몸과 웃’, ‘교통안전’, ‘스포츠 마사지’, ‘노년기의 성생활과 건강’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간호교육 프로그램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이를 토대로 요구에 근거한 프로그램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장기요양 보호정책기획단을 설치하여 건강상의 장애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의 유형, 서비스 제공인력 및 시설 확대에 대한 기준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나섰다. 교육부에서는 지금까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을 교육 정책에서의 주요 대상 집단으로 고려한 여가활용, 퇴직 전 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21세기 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교육에 관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그리고 노동부의 장기발전 계획에 의하면 독거 노인 보호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 군, 구별로 1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원한다는 항목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여가에 대한 욕구 증대에 대응한다고 제시되어 있다(허정무, 2000).

이러한 정책적 흐름과 관련해 노인간호교육에서도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또 노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병약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로 인해 각종 사회적 역할을 수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노인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노인 문제의 예방이나 해결을 위해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김동일, 2001).

특히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보건소, 시설 등에서 노인상담가나 교육담당자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보건교육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교육실태에 대해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정도와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영역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 수원시 내 8대 평생교육원 및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10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0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는 문헌연구 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versio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자신이 가진 문제의 유형 중 가장 심각하게 인지하는 문제의 유형으로는 경제문제가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건강문제 33.9%, 기타문제 9.2%, 자녀문제 6.4%, 고독감문제 5.5%, 거주문제 2.8% 순으로 나타났다.
- 노인교육실태에 대한 인식정도에서 대상자의 94.5%가 노인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데 반해 노인교육기관의 수는 너무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노인교육에 대해 참여 의지를 질문하였을 때 79.6%는 참여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영역에 대한 노인교육요구 정도는 각각 4.36점, 4.02점, 4.70점으로 사회적 영역에 대한 교육요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영역에서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은 '치매예방'으로 5점 만점에 4.75점으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정신적 영역에서는 '죽음의 의미와 준비'가 4.46점으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고, 사회적 영역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해 4.64로 가장 교육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의 차이에서는 성별에 따라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교육요구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4.27$, $p=0.000$),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80세 이상 노인들이 70-79세 노인들에 비해

정신적 영역에 대한 노인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p=0.045$).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유배우자 노인에 비해 신체적 영역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t=-2.31$, $p=0.024$), 종종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인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에 비해 신체적 영역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t=2.66$, $p=0.009$). 그리고 직업을 가진 노인이 직업이 없는 노인에 비해 전체 영역($t=2.04$, $p=0.045$)과 교육 요구도($t=2.04$, $p=0.045$)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잠재적인 교육수요자인 노인의 교육적 요구에 근거하여 향후 노인교육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 개발될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해 노년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바람직한 지식을 갖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노인상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일 (2001). 장수시대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생존 전략. *한국노년학*, 21(1), 167-181.
- 김수영 (2000).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황분석 및 방향제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수원.
- 김일성 (2002). 퇴직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김재인 (1987). 후기성인의 사회교육적 학습참여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탐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나항진 (2002). 노인학교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여가활동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노용구 (1999). 노인여가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민순, 주애란, 백명, 박상하, 신인용 (2002).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교육 프로그램실제. *한국노인복지학회*, 3, 211-236.
- 박성준 (1993). 한국 노인학교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박재간, 홍미령 (1999). 노인교육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
- 보건복지부 (2001). 2001년도 일차보건의료사업계획서.
- 송화진 (2001). 고학력 노인의 노인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유수정, 김현숙, 한규량 (2002). 재가 노인의 신체적 건강,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보건욕구 조사. *한국노년학*,

- 22(3), 115-133.
- 이복희 (2003). 대도시 노인의 교육요구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이순희 (2000).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대구.
- 이승미 (2002). 한국 노인의 사회계층별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원의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이형진 (2004).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안.
- 장인협, 최성재 (2000).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121-141, 232-246, 489-504.
- 통계청 (2001). 인구주택총조사.
- 한정란 (1993). 노인교육 교육과정 개발 실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허정무 (2000). 고령화사회와 노인교육의 실천방안, 노인복지정책연구과제, p.53.
- 홍기형 (2000). 중하위 계층 노인의 학습 요구 분석. 대전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포천.
- Anderson-Hanley, C. (1999). Experiential activities teaching psychology of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25, 449-456.
- Billet, S. (1999). Guided learning at work. In D. Boud & J. Garrick(Eds). *Understanding Learning at work*. London & New York: Routledge.
- Chowdhary, U., Schultz, C. M., Hasselriis, P., Kujath, K. A., Peen, D., & Henson, S. (2000). Intergenerating activities and aging apprecia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Educational Gerontology*, 26, 541-564.
- Knowles, M. S. (198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From pedagogy to andragogy*. New York: Cambridge Books.
- Russel, S. Die, A., & Walker, J. (1986). Changing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Impact of three methods of attitude change. *Educational Gerontology*, 12, 241-251.
- Vogel, C. H. (1982).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8, 214-219.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Education Needs of the Korean Elderly

Kim, Junghye¹⁾

1)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at types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problems elderly and what sort of education they were in want of to tackle their problem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09 elderly who used Lifelong Education Center and social welfare agencies in Suwon. The data were gathered from September 1 through the 30th day, 2004. The instrument was questionnaires prepared by this researcher after reviewing relevant literatu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Ver. 11.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Among different types of problems with the elderly people investigated, 42.2%, found economic problems most serious, followed by health problems with 33.9%. 2. They got a 4.36, 4.02 and 4.70 in needs for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education respectively. 3. Regarding physical area, the elderly people were most in want of education about the prevention of dementia. As to psychological area, they attached the meaning of death and preparation for that. Social area, they wanted to learn about problems with the elderly.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I suggest that More educational programs geared toward the elderly should be developed in response to their needs for education.

Key words : Educational assessment, Aged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Junghye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College

Kwonsun-Gu, Suwon, Kyonggi-Do, 441-748

Tel: +82-031-290-8110 Fax: +82-31-290-8142 E-mail: p000022@swc.ac.kr